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ating Disorder Belief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o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ating Attitude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김정민*

박사과정 박경미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Min

Doctoral Course : Park, Kyoung-Mi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ating disorder belief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o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ating attitude. Questionnaires regarding eating disorder belie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eating attitude were administered to 900 1st and 2nd grad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Finally 87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Eating disorder belie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eating attitude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2) While control over eating, weight/shape as a means to acceptance,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rive for thinness, control over eating, internalization, and weight/shape as a means to acceptan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bulimia. 3) Internaliz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disorder belief and eating attitude(drive for thinness, bulimia).

▲주요어(Key Words) : 섭식태도(eating attitude), 섭식신념(eating disorder belief),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I. 서론

DSM-IV에 따르면 섭식장애(eating disorder)의 주요 특성들은 신체상(body image)의 문제(예, '마른 것'에 대한 과대 평가,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지나친 염려), 섭식에 대한 과도한 통제 또는 통제의 부족(예, 심각한 섭식 제한, 폭식),

체중이나 체형을 통제하기 위한 극단적 행동(예, 강박적 운동, 구토) 등을 포함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최근 섭식장애는 여자 청소년 및 성인을 위협하는 10가지 심각한 질병들 중 하나로 분류되었는데(Mathers et al., 2000), 비만, 우울장애, 자살 시도, 불안장애, 물질남용 등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Stice et al., 1999; Stice et al., 2000),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 정신 장애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llar et al., 2005).

* 주저자 : 김정민(E-mail : jmkim122@mju.ac.kr)

또한 섭식장애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재발의 위험도 높다(Fairburn et al., 2000).

섭식장애의 유병률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ek, 2006; Wittchen & Jacobi, 2005). 최근 실시된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Kessler et al., 2004; Kessler, et al., 2005)에서 섭식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 남성이 0.3%, 여성이 0.7%,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남성이 0.5%, 여성이 1.5%로 뚜렷한 성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섭식장애의 유병률은 타문화권에서도 서구 문화권과 유사한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Becker & Fay, 2006; Gupta et al., 2001; Keel & Kiume, 2003; Makino, Tsuboi, & Dennerstein, 2004).

섭식장애의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국외의 선행 연구들은 크게 인지적 모형에 기초한 것과 사회문화적 모형에 기초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섭식장애의 인지적 모형은 부정적 자기 평가, 체중, 체형 및 섭식에 관한 왜곡된 지각, 역기능적 가정(assumption)과 신념들이 섭식장애의 증상과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Fairburn, 1997; Fairburn, Marcus, & Wilson, 1993). 이러한 가정들은 흔히 "if...then"의 조건적인 신념(예, "만일 내가 뚱뚱하다면 친구가 없을 거야", "만일 내가 뚱뚱하다면 난 실패자나 다름 없어" 등)의 형태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일반적 규칙(예, "나는 먹는 것이 통제가 안돼" 등)의 형태를 띤다(Beck, 1996; Cooper, Todd, & Wells, 1995). 이들은 절대적이고 이분법적 특성을 지닌 핵심 신념(core belief)과 관련이 있으며 핵심 신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자기 신념들을 가리킨다(예,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 받을 만하지 않아", "나는 혼자야" 등). 즉, 인지적 모형은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직접적인 외부 자극 혹은 상황이 아니라 자극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개인의 인지적 구조(cognitive structure)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 섭식장애의 왜곡된 사고를 다루는 인지적 재구조화는 섭식장애의 증상과 행동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Leung, et al., 2000; Wilson & Fairburn, 2002).

그러나 섭식장애 관련 가정 및 신념들은 주로 섭식장애를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의 치료 과정이나 임상 장면에서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질문지를 사용한 몇몇 이전 연구들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추론 양식 혹은 체중, 체형, 섭식 등과 관련이 없는 역기능적 가정들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였거나, 체중, 체형 및 섭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ooper 등(1997)은 섭식신념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 자기 신념, 체중 및 체형에 의한 타인의 수용, 체중 및 체형에 의한 자기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가 섭식신념의 하위 요인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oper

등(1997) 섭식신념 척도를 사용하여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가정과 신념들을 알아봄으로써 섭식장애의 인지적 모형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섭식장애의 사회문화적 모형은 대중매체의 '마른 것'에 대한 기준(thin ideal)과 여성 신체의 대상화(objectification)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Stice, 2002; Thompson & Smolak, 2001). 즉, 대중매체가 여성의 미에 대해 지나치게 '마른 것'(thinness)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개인 신체상의 왜곡, 신체 불만족, 섭식 거부 및 폭식과 그에 따른 부적절한 보상 행동(예, 자기 유발성 구토, 하제·이뇨제 등의 약물 사용, 과도한 운동)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는 여성의 대상화를 통해 여성의 가치가 외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추구하도록 강화시킨다는 것이다(Moradi, et al., 2005).

섭식장애의 사회문화적 모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Levine & Harrison, 2004). 첫째 범주는 대중매체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으로 패션 잡지, TV 광고, 프로그래밍 등 시각적 매체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마른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젊고, 키가 크고, 지나치게 마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outs & Burggraf, 2000). 둘째 범주는 대중매체의 노출과 섭식장애 증상 간의 상관 연구들로 '마른 것'에 대한 기준'이 등장하는 잡지 혹은 TV에 할애하는 시간과 섭식장애 증상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Anderson et al., 2001; Harrison, 2000). 셋째 범주는 실험적으로 조작된 매체의 노출과 그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들로 최근 시행된 메타분석 연구 결과(Groesz, et al., 2002) '마른 것'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매체의 노출은 섭식장애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의 노출 수준과 섭식장애 증상 간의 관계를 다룬 초기 연구들 이후 섭식장애의 사회문화적 모형에 관한 연구들은 점차 대중매체의 영향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들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즉, 오늘날 대중매체의 활용은 급격히 증가하여 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매체의 동일한 노출 수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혹은 성향에 따라 섭식장애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Chin & McConnell, 2003; Halliwell & Dittmar, 2004). 이 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자극 혹은 이미지를 수용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문화적 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식(awareness)과 내면화(internalization)이다. 인식은 '마른 것' 또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단순히 아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내면화는 그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을 가리킨다(Heinberg, et al., 1995; Thompson & Stice, 2001). 선행연구 결과 특히 개인의 내면화 성향은 객관적인 대중매체의 노출 수준에 비해 더욱 정확히 섭식 관련 문제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Levine & Harrison, 2004; Stice & Hoffman, 2004; Thompson et al., 1999).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언급하였듯이 섭식장애의 관련 변인들에 관한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섭식장애의 왜곡된 지각, 가정 및 신념 등 인지적 구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대중매체의 영향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대중매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섭식장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매우 소수이며, 거의 대부분 섭식장애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김영신, 공성숙, 2004; 백유진 등, 2001; 이선영 등, 2001), 체중 조절 행위 혹은 비만도(김노을, 2005; 송경애, 박재순, 2003; 이임순, 1997), 가족 기능(정영선, 2005) 간의 관계를 다룬 것들이다. 섭식장애의 인지적 모형에 근거한 변인들을 다룬 것으로는 체형과 체중에 근거한 자기평가(이상선, 오경자, 2004)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우며, 섭식 관련 가정 및 신념을 다룬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섭식과 연관이 있는 가정 및 신념의 경우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관련 척도의 타당화 작업과 함께 가정 및 신념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섭식장애의 사회문화적 모형에 근거한 변인들 중 하나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다룬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 및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본 것(홍금희, 2006) 뿐으로 전반적인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섭식장애의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인지적 모형과 사회문화적 모형을 통합하여 특정 섭식신념과 대중매체의 외모 관련 기준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섭식신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중재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고생의 섭식신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섭식태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갖는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섭식장애가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여(Hudson et al., 2005; Striegel-Moore et al., 2005) 경기도에 위치한 S여자고등학교 1, 2 학년생 9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87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은 1학년이 479명(54.7%), 2학년이 396명(45.3%)이었다.

2. 연구도구

1) 섭식신념 척도

섭식신념 척도(Eating Disorder Belief Questionnaire: EDBQ, Cooper et al., 1996)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또한 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섭식신념 척도 각 문항의 산출된 요인부하량은 <표 1>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10문항으로 총 설명변량은 30.96%였으며 부정적 자기 신념(negative self-beliefs)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총 설명변량은 11.48%였으며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acceptance by others & self-acceptance)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6문항으로 총 설명변량은 5.26%였으며 섭식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eating)로 명명하였다. 이들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47.69%로 나타났다. 문항의 선정 기준은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 6번, 8번, 18번, 23번, 26번을 제외한 27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ooper 등(1996)의 연구를 근거로 각 요인 명을 결정하였다.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섭식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Heinberg, et al., 1995)는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인식(awareness)과 내면화(internal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섭식신념 척도 문항의 요인부하량

| 문항번호 | 문항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 13 | 나는 유능하지 않다. | .795 | | |
| 5 | 나는 잘난 게 없다. | .773 | | |
| 21 | 나는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사람이 아니다. | .723 | | |
| 27 | 나는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712 | | |
| 17 | 나는 머리가 둔하다. | .706 | | |
| 31 | 나는 못생겼다. | .698 | | |
| 9 | 나는 실패작이다. | .690 | | |
| 29 | 나는 귀엽지 않다. | .636 | | |
| 1 | 나는 명칭하다. | .630 | | |
| 25 | 나는 외톨이다. | .621 | | |
| 30 | 만약 내가 살을 빼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 | .747 | |
| 22 | 만약 내 몸매가 균형 잡힌 몸매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 | .727 | |
| 32 | 만약 내가 살을 빼면, 나는 세상에서 좀 더 가치 있어질 것이다. | | .714 | |
| 11 | 만약 내 몸이 날씬하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 | .709 | |
| 28 | 만약 내가 살을 빼면,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해질 것이고 나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다. | | .704 | |
| 2 | 만약 내 넓적다리가 단단하다면 나는 좀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 | .647 | |
| 10 | 만약 내 엉덩이가 작다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 줄 것이다. | | .612 | |
| 7 | 만약 내 몸집이 단단하다면, 나는 좀 더 매력적일 것이다. | | .606 | |
| 3 | 만약 내 아랫배가 날씬하다면, 나는 좀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 | .597 | |
| 19 | 지방이나 늘어진 살은 너무 싫다. | | .564 | |
| 14 | 만약 내가 살이 찐다면,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 | .536 | |
| 16 |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먹는다면, 나는 살이 쪼를 것이다. | | | .743 |
| 12 |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에 세 끼를 계속 먹으면 살이 쪼를 것이다. | | | .689 |
| 15 | 만약 내가 디저트나 푸딩을 먹는다면, 나는 살이 쪼를 것이다. | | | .666 |
| 20 | 만약 내가 배고픔을 견디어 낸다면 컨트롤을 잃고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 | .486 |
| 4 | 만약 내가 무언가를 먹었다면, 가능한 빨리 그것을 없애야 한다. | | | .485 |
| 24 | 나는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을 먹게 될 경우, 멈추지 못하고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 | | | .484 |
| 고유치 설명력(%) | | 30.96% | 11.48% | 5.26% |

주) 요인 1: 부정적 자기신념 요인 2: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요인 3: 섭식에 대한 통제

<표 2>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 M | SD |
|-----------------|--------------|-------|
| 섭식신념 | 부정적 자기신념 | 18.29 |
| |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 25.41 |
| | 섭식에 대한 통제 | 12.67 |
| | 총 점 | 56.41 |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내면화 | 26.26 |
| | 인식 | 17.89 |
| | 총 점 | 44.15 |
| 섭식태도 | 마르고 싶은 욕구 | 22.06 |
| | 체형에 대한 불만 | 27.46 |
| | 폭 식 | 19.24 |
| | 총 점 | 68.79 |

인식은 단순히 '마른 것에 대한 기준'(thin ideal)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예,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날씬한 것이 중요하다.' 등). 반면, 내면화는 그러한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예, '나도 수영복 모델 같았으면 하고 바란다.' 등).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과 내면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3) 섭식태도 척도

섭식태도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Garner, 1996)를 이임순(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 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구(음식물 섭취의 제한, 체중과 다이어트에 대한 몰두,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등), 체형에 대한 불만(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불만), 폭식(폭식에 대한 성향 및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하기에 앞서 2007년 3월 23일 경기도 K고등학교 1, 2, 3학년 여고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문항의 이해나 질문지 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예비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S여자고등학교 1, 2학년 각각 13학급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으며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각 반별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총 90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875부가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 요인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고생의 섭식신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섭식태도 간의 관계

여고생의 섭식신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섭식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섭식태도는 섭식신념($r=.5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r=.48$)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는 부정적 자기 신념($r=.22$),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r=.60$), 섭식에 대한 통제($r=.62$)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체형에 대한 불만은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r=.12$), 섭식에 대한 통제($r=.09$)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폭식은 부정적 자기 신념($r=.24$),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r=.40$), 섭식에 대한 통제($r=.4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마르고 싶은 욕구는 내면화($r=.53$), 인식($r=.40$)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체형에 대한 불만도 내면화($r=.09$), 인식($r=.09$)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폭식의 경우에도 내면화($r=.34$), 인식($r=.2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섭식신념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자기 신념은 내면화($r=.16$), 인식($r=.13$)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표 3> 여고생의 섭식신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섭식태도 간의 관계

| 구 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섭식태도 | 1 | | | | | | | | | | | |
| | 2 | .26** | | | | | | | | | | |
| | 3 | .57** | .31** | | | | | | | | | |
| | 4 | .86** | .57** | .84** | | | | | | | | |
| 섭식신념 | 5 | .22** | -.02 | .24** | .22** | | | | | | | |
| | 6 | .60** | .12** | .40** | .53** | .38** | | | | | | |
| | 7 | .62** | .09** | .45** | .56** | .37** | .65** | | | | | |
| | 8 | .58** | .08** | .44** | .54** | .75** | .86** | .79** | | | | |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9 | .53** | .09* | .34** | .46** | .16** | .61** | .46** | .51** | | | |
| | 10 | .40** | .09** | .25** | .35** | .13** | .50** | .36** | .41** | .48** | | |
| | 11 | .56** | .10** | .35** | .48** | .17** | .65** | .48** | .54** | .95** | .74** | |

* $p<.05$, ** $p<.01$

주) 1. 마르고 싶은 욕구 2. 체형에 대한 불만 3. 폭식 4. 섭식태도 5. 부정적 자기 신념 6. 체중/체형에 대한 불만 7. 섭식에 대한 통제 8. 섭식신념 9. 내면화 10. 인식 1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나타났고,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도 내면화($r=.61$), 인식($r=.50$)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섭식에 대한 통제의 경우에도 내면화($r=.46$), 인식($r=.36$)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1)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마르고 싶은 욕구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부정적 자기 신념,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 내면화,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 섭식신념의 하위 유형들인 부정적 자기 신념,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를, 2단계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 유형들인 내면화, 인식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95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41~.83으로 .1이상이고, VIF값이 1.20~2.39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섭식에 대한

통제($\beta=.43$),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beta=.35$), 부정적 자기 신념($\beta=.07$)의 순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6%($F=238.44$, $p<.001$)였다. 2단계에서는 섭식에 대한 통제($\beta=.35$),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beta=.19$), 내면화($\beta=.15$)의 순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3%가 증가한 49%($F=162.65$, $p<.001$)였다.

2)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체형에 대한 불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체형에 대한 불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체형에 대한 불만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체형에 대한 불만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 내면화,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 섭식신념의 하위 유형들인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를, 2단계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 유형들인 내면화, 인식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검증 결과 D-W 계수가 1.90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43~.71로 .1이상이고, VIF값이 1.41~2.28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표 4>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 | B | Beta | R ² | R ² 변화량 | F |
|-----|--------------|------|--------|----------------|--------------------|-----------|
| 1단계 | 부정적 자기 신념 | -.09 | -.07* | .46 | | 238.44*** |
| |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 .43 | .35*** | | | |
| | 섭식에 대한 통제 | .88 | .43*** | | | |
| 2단계 | 부정적 자기 신념 | -.06 | -.04 | .49 | .03 | 162.65*** |
| |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 .26 | .21*** | | | |
| | 섭식에 대한 통제 | .82 | .39*** | | | |
| | 내면화 | .22 | .19*** | | | |
| | 인식 | .18 | .08** | | | |

* $p<.05$, ** $p<.01$, *** $p<.001$

<표 5>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체형에 대한 불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 | B | Beta | R ² | R ² 변화량 | F |
|-----|--------------|-----|------|----------------|--------------------|--------|
| 1단계 |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 .08 | .12 | .02 | | 6.42** |
| | 섭식에 대한 통제 | .01 | .01 | | | |
| 2단계 |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 .07 | .10 | .02 | .00 | 3.31* |
| | 섭식에 대한 통제 | .01 | .01 | | | |
| | 내면화 | .00 | .01 | | | |
| | 인식 | .03 | .02 | | | |

* $p<.05$, ** $p<.01$

섭식신념의 하위 유형들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 유형들 중 체형에 대한 불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폭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폭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폭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폭식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부정적 자기 신념,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 내면화,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 섭식신념의 하위 유형들인 부정적 자기 신념,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를, 2단계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 유형들인 내면화, 인식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검증 결과 D-W 계수가 1.94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41~.83으로 .1이상이고, VIF값이 1.20~2.41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섭식에 대한 통제($\beta = .32$),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beta = .15$)의 순으로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 ($F=79.75, p<.001$)였다. 2단계에서는 섭식에 대한 통제($\beta = .30$), 내면화($\beta = .11$),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beta = .10$)의 순

으로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1%가 증가한 23%($F=50.38, p<.001$)였다.

3.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갖는 중재효과

1)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면화의 중재효과

(1)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면화의 중재효과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내면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고생의 마르고 싶은 욕구를 종속변수로 하고 섭식신념, 내면화, 섭식신념과 내면화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섭식신념, 내면화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섭식신념×내면화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섭식신념과 내면화 모두 마르고 싶은 욕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섭식신념이 높을수록, 내면화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구가 높음을 가리킨다. 2단계에서는 추가로 투입한 섭식신념×내면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한 설명력이 .41에서 .42로 증가하였다.

<표 6>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폭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 | B | Beta | R ² | R ² 변화량 | F |
|-----|--------------|-----|--------|----------------|--------------------|----------|
| 1단계 | 부정적 자기 신념 | .05 | .01 | .22 | | 79.75*** |
| |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 .18 | .17*** | | | |
| | 섭식에 대한 통제 | .54 | .32*** | | | |
| 폭 식 | 부정적 자기 신념 | .07 | .06 | .23 | .01 | 50.38*** |
| |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 .10 | .10* | | | |
| | 섭식에 대한 통제 | .51 | .30*** | | | |
| | 내면화 | .10 | .11** | | | |
| | 인 식 | .06 | .03 | | | |

*p<.05, **p<.01, ***p<.001

<표 7> 여고생의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한 섭식신념, 내면화, 섭식신념×내면화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 | | 독립변수 | B | SEB | β | R ² | t |
|-----------|-----|----------|------|-----|---------|----------------|----------|
| 마르고 싶은 욕구 | 1단계 | 섭식신념 | .26 | .02 | .43 | .41 | 13.85*** |
| | | 내면화 | .36 | .04 | .31 | | 10.16*** |
| 2단계 | | 섭식신념 | .08 | .06 | .13 | .42 | 1.29 |
| | | 내면화 | -.03 | .13 | -.03 | | -.25 |
| | | 섭식신념×내면화 | .01 | .00 | .56 | | 3.06** |

p<.01, *p<.001

여고생의 섭식신념×내면화가 마르고 싶은 욕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내면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대로 내면화 상집단을 내면화의 중앙값보다 1SD이상, 내면화 하집단을 내면화의 중앙값보다 1SD이하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섭식신념을 독립변수로 하여 마르고 싶은 욕구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표준회귀계수인 β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 상집단($\beta = .58, p < .000$)이 내면화 하집단($\beta = .28, p < .002$)보다 섭식신념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마르고 싶은 욕구 간의 관계를 내면화가 유의한 수준에서 중재함을 의미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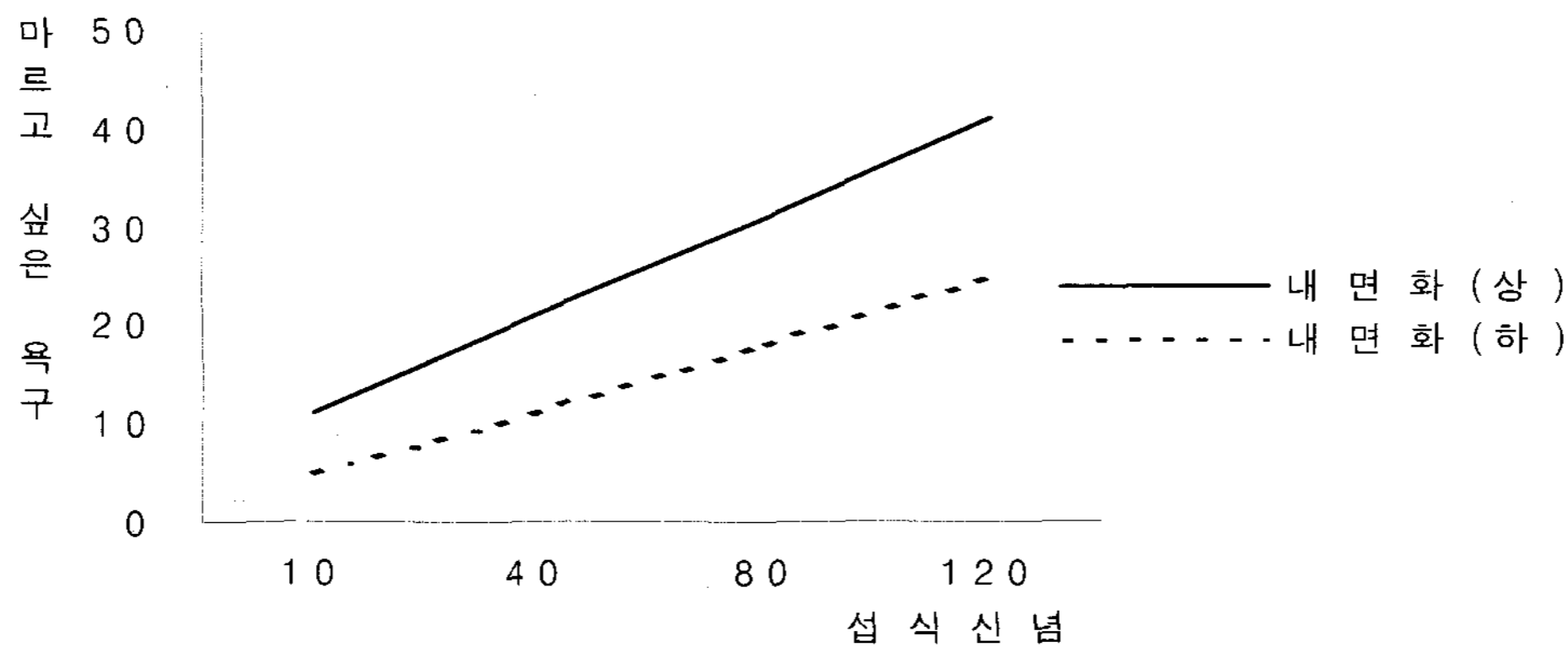
- (2)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체형에 대한 불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면화의 중재효과
-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체형에 대한 불만에 미치는 영향이

내면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불만을 종속변수로 하고 섭식신념, 내면화, 섭식신념과 내면화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섭식신념, 내면화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섭식신념×내면화를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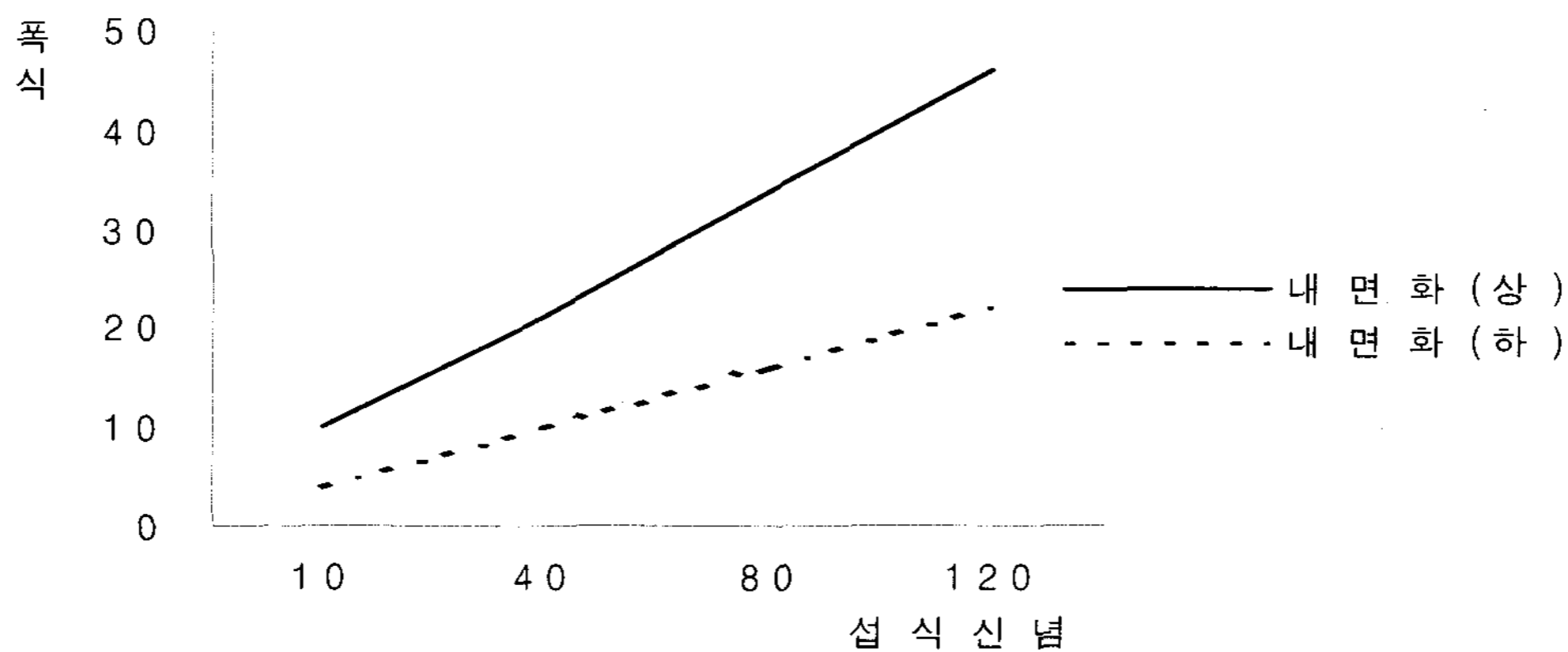
분석 결과 섭식신념, 내면화 모두 체형에 대한 불만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에서 추가한 섭식신념×내면화 역시 체형에 대한 불만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면화의 중재효과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이 내면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고생의 폭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섭식신념, 내면화, 섭식신념과 내면화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섭식신념, 내면화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



<그림 1>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면화의 중재효과



<그림 2>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면화의 중재효과

<표 8> 여고생의 폭식에 대한 섭식신념, 내면화, 섭식신념×내면화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 | | 독립변수 | B | SEB | β | R ² | t |
|-----|------|----------|------|-----|------|----------------|---------|
| 1단계 | 섭식신념 | .18 | .02 | .36 | .21 | 10.09*** | |
| | 내면화 | .14 | .03 | .15 | | 4.16*** | |
| 폭식 | 2단계 | 섭식신념 | -.08 | .06 | -.16 | .23 | -1.36 |
| | | 내면화 | -.42 | .12 | -.45 | | -3.38** |
| | | 섭식신념×내면화 | .01 | .00 | .98 | | 4.67*** |

p<.01, *p<.001

에서는 섭식신념×내면화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섭식신념과 내면화 모두 폭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섭식신념이 높을수록, 내면화가 높을수록 폭식 정도가 높음을 가리킨다. 2단계에서는 내면화와 추가로 투입한 섭식신념×내면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폭식에 대한 설명력이 .21에서 .23으로 증가하였다.

여고생의 섭식신념×내면화가 폭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이 내면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대로 내면화 상집단을 내면화의 중앙값보다 1SD이상, 내면화 하집단을 내면화의 중앙값보다 1SD이하로 구분하였고 이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섭식신념을 독립변수로 하여 폭식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표준회귀계수인 β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 상집단(β=.52, p<.000)이 내면화 하집단(β=.24, p<.007)보다 섭식신념이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폭식 간의 관계를 내면화가 유의한 수준에서 중재함을 의미한다<그림 2>.

2)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중재효과

앞서 내면화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각각 마르고 싶은 욕구, 체형에 대한 불만,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은 모두 중재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섭식신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갖는 중재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섭식태도는 섭식신념,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섭식태도는 부정적 자기 신념보다는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섭식에 대한 통제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섭식태도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일반적 자기 신념보다 체중, 체형, 섭식 등에 관한 특정 신념들과 더욱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체형에 대한 불만의 경우 마르고 싶은 욕구나 폭식과는 달리 부정적 자기 신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자기 신념은 지나친 섭식 제한이나 폭식과 같은 이상 섭식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섭식장애와 관련이 적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심각한 수준의 섭식장애의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과 같은 일반적인 자기 신념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가리킨다.

둘째,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고 싶은 욕구의 경우 섭식에 대한 통제,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 내면화, 인식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폭식의 경우 섭식에 대한 통제, 내면화,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마르고 싶은 욕구와 폭식의 경우 모두 섭식신념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섭식장애의 인지적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와 폭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섭식신념들은 섭식에 대한 통제, 체중/체형에 의한 수용으로,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자기 신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자기 평가보다 체중, 체형 및 섭식에 관한 구체적인 인지 구조가 섭식장애를 보다 잘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섭식신념 중 섭식에 대한 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마른 것에 대한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타인의 수용이나 인정을 얻는 것보다 자신이 섭식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섭식장애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섭식장애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장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는 역기능적 가정 및 신념들을 기능적 대안들로 바꾸는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 과정은

섭식에 대한 통제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취 가능한 목표 설정과 성공적인 목표 달성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섭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점차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섭식장애를 위한 일반적인 인지적 재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에 비해 내면화가 마르고 싶은 욕구와 폭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 성향이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구와 폭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Levine & Harrison, 2004; Stice & Hoffman, 2004)와 유사한 것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외모 관련 기준을 아는데 그치는 수동적인 인식보다 능동적으로 그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려는 성향인 내면화가 섭식태도를 더 잘 예측해 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마른 것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매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섭식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치 않으며, 이와 더불어 지각한 정보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체형에 대한 불만의 경우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대한 불만은 마르고 싶은 욕구나 폭식에 비해 병리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APA, 1994), 섭식신념이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심각한 수준의 섭식장애를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체형에 대한 불만의 경우 강한 섭식신념이나 외모에 대한 내면화 성향이 없더라도 순간적인 매체에 노출되는 것 등에 의해 흔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지속적이기보다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셋째, 여고생의 섭식신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면화가 유의한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면화 상집단이 내면화 하집단에 비해 섭식신념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섭식신념이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 성향에 따라 섭식신념이 마르고 싶은 욕구와 폭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차이가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내면화 성향이 높은 경우 내면화 성향이 낮은 경우에 비해 대중매체에 의한 외적 정보가 기존의 역기능적 섭식신념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역기능적 섭식신념으로 통합되어 섭식장애를 일으킬 위험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섭식장애 관련 변인들은 섭식장애 고위험 집단의 선별, 섭식장애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공공 정책의 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섭식장애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역기능적 섭식신념 외에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외모에 대한 정보를 내면화하는 성향을 함께 다루어 '마른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역기능적 섭식신념의 발달은 섭식에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 과거 또래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경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 기간의 개입에 의해 변화하기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내면화 성향과 같은 특성은 심리교육적(psychoeducation) 접근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으로도 변화하기 용이할 것이다. 최근 외모에 대한 부적절함과 열등감을 부추기도록 고안된 대중매체의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예, media literacy program)이 매체 이미지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Posavac, et al., 2001; Stice & Shaw, 2004). 이 외에도 최근 매체를 통한 비만 예방의 지나친 강조가 섭식태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나 다이어트 관련 산업의 허위 및 과장 광고의 규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전적, 발달적 변인들(예, 세로토닌, BMI, 성격 특성, 가족 및 또래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변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이 여자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남성의 경우 '마른 것' 대신 '근육질'(muscularity)을 추구하는 다른 유형의 섭식장애가 보고되고 있다(Cohane & Pope, 2001). 그러므로 여자 성인, 남자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폭 넓은 연구가 요청된다. 이 경우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예, 외모 관련 속성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등)의 영향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성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섭식장애 척도(EDI-2)가 임상집단 또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Garner, 1991), 일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대상 집단이 섭식장애의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는 실제 임상집단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8년 03월 04일
- 심사일 : 2008년 03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5월 30일

【참 고 문 헌】

- 김노을(2005). 여고생의 체중조절 특성과 비만도가 식이장애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 여고생과 일반여고생의 비교.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공성숙(2004). 여자 청소년의 체중조절행위, 섭식장애 증상,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3(3), 304-314.
- 백유진·강현은·임강은·임수영·황승주·유태우(2001). 서울 지역 여고생의 체중조절, 우울 및 비만에 따른 식사태도. *가정의학회지*, 22, 690-697.
- 송경애·박재순(2003). 서울지역 일부 대학생의 식습관, 섭식장애 발생경향, 체중조절형태 및 비만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457-466.
- 이상선·오경자(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4), 913-926.
- 이상선·오경자(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3(1), 91-107.
- 이선영·김성원·강재현(2001).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의 식이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 식이장애 증상의 우울 및 불안 성향과의 연관성. *대한비만학회지*, 10(4).
- 이임순(1997). 섭식절제가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선(2005).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3), 685-706.
- 홍금희(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비만도가 신체 이미지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erson, D. R., Huston, A. C., Schmitt, K. L., Linebarger, D. L., & Wright, J. C.(2001). Early childhood television viewing and adolescent behavior: the re-contact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 1-147.
- Beck, A. T.(1996). Beyond belief: a theory of modes,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In P. M. Salkovskis (Ed.), *Frontiers of cognitive therapy* (1-25). N.Y.: Guilford Press.
- Becker, A., & Fay, K.(2006). Sociocultural issues and eating disorders. In S. Wonderlich, J. Mitchell, M. de Zwaan & H. Steiger (Eds.), *Annual review of eating disorders* (35-63). Oxon, England: Radcliffe Publishing.
- Chin E. P., & McConnell, A. R.(2003). Do racial minorities respond in the same way to mainstream beauty standar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Asian, black, and white women. *Self and Identity*, 2, 153-167.
- Cohane, G. H., & Pope, H. G.(2001). Body image in boy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 373-379.
- Cooper, M. J., Todd, G., & Cohen-Tovee, E.(1996). Core beliefs in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Cognitive Therapy Newsletter*, 10(2), 2-3.
- Cooper, M. J., Todd, G., & Wells, A.(1995. July). *Content, origins and consequences of dysfunctional beliefs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 Cooper, M., Cohen-Tovee, E., Todd, G., Wells, A., & Tovee, M.(1997). The eating disorder belief questionnaire: preliminary develop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4), 381-388.
- Fairburn, C. G.(1997). Eating disorder. In D. M. Clark & C. G. Fairburn (Eds.), *Science and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ur therapy* (209-24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irburn, C. G., Cooper, Z., Doll, H. A., Norman, P. A., & O'Connor, M. E.(2000). The natural course of bulimia nervosa and binge eating disorder in young wom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 659-665.
- Fairburn, C. G., Marcus, M. D., & Wilson, C. T.(1993). Cognitive-behaviour therapy for binge eating and bulimia nervosa: a comprehensive treatment manual. In C. G. Fairn & G. T. Wilson (Eds.), *Binge eating: Nature, assessment and treatment* (361-414). N.Y.: Guilford Press.
- Fouts, G., & Burggraf, K.(2000). Television situation comedies: female weight, male negative comments, and audience reactions. *Sex Roles*, 42, 925-932.
- Garner, D. M.(1996).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In L. I. Sederer & B. Dickey (Eds.), *Outcomes assessments in clinical practice* (92-96). N.Y., N.Y.: Williams and Wilkins.
- Garner, D. M.(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

- 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1-16.
- Gupta, M. A., Chaturvedi, S. K., Chandrana, P. C., & Johnson, A. M.(2001). Weight-related body image concerns among 18-24-year-old women in Canada and India: an empirical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0*, 193-198.
- Halliwell, E., & Dittmar, H.(2004). Dose size matter? The impact of model's body size on women's body-focused anxiety and adverti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04-122.
- Harrison, K.(2000). Television viewing, fat stereotyping, body shape standards,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in grade school children. *Communication Research, 27*, 617-640.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 81-89.
- Hoek, H. W.(2006). Incidence, prevalence and mortality of anorexia nervosa and other eating disorder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9*, 389-394.
- Hudson, J. I., Hiripi, E., Harrison, G., & Kessler, R. (2005). *The epidemiology of eating disorder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Meeting of the Eating Disorders Research Society, Tronto, Ontario, Canada.
- Keel, P. K., & Klump, K. L.(2003). Are eating disorders culture-bound syndrome? Implications for conceptualizing their eti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29*, 747-769.
- Kessler, R. C., Bergland, P., Chiu, W. T., Demler, O., Heeringa, S., Hiripi, E., et al. (2004). The US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NCS-R): design and field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13*(2), 69-92.
- Kessler, R. C., Chiu, W. T., Dernier, O., & Walters, E. E.(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 617-627.
- Leung, N., Waller, G., & Thomas, G.(2000) Outcome of group cognitive-behavior therapy for bulimia nervosa: the role of core belief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145-156.
- Levine, M., & Harrison, K.(2004). Media's role in the perpetuation and prevention of negative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In J. K. Thompson (Ed.), *Handbook of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N.Y.: Wiley.
- Makino, M., Tsuboi, K., & Dennerstein, L.(2004). Prevalence of eating disorders: a comparison of western and non-western countries. *Medscape General Medicine, 6*(3), 49.
- Mathers, C. D., Vos, E. T., Stevenson, C. E., & Begg, S. J.(2000). The Australian burden of disease study: measuring the loss of health from diseases, injuries and risk factors.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2*, 592-596.
- Millar, H. R., Wardell, F., Vyvyan, J. P., Naji, S. A., Prescott, G. J., & Eagles, J. M.(2005). Anorexia nervosa mortality in Northeast Scotland, 1965-1999.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753-757.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20-428.
- Posavac, H. D., Posavac, S. S., & Weigel, R. G.(2001). Reducing the impact of media images on women at risk for body image disturbance: three targeted interven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24-340.
- Stice, E., & Hoffman, E.(2004). Eating disorder prevention programs. In J. K. Thompson (Ed.), *Handbook of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N.Y.: Wiley.
- Stice, E., & Shaw, H.(2004). Eating disorder prevention program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 206-227.
- Stice, E.(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825-848.
- Stice, E., Cameron, R., Killen, J. D., Hayward, C., & Taylor, C. B.(1999). Naturalistic weight reduction efforts prospectively predict growth in relative weight and onset of obesity among female adoles-

- sc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967-974.
- Stice, E., Hayward, C., Cameron, R., J. D., & Taylor, C. B.(2000). Body image and eating related factors predict onset of depression in female adolesc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38-444.
- Striegel-Moore, R. H., Franko, D. L., Thompson, D., Barton, B., Schreiber, G. B., & Daniels, S. R.(2005). An empirical study of the typology of bulimia nervosa and its spectrum variants. *Psychological Medicine*, 35, 1563-1572.
- Thompson, J. K., & Smolak, L.(2001).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in youth: Asse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Heinberg, L., Altabe, M., & Tantleff-Dunn, S.(1999). *Exacting beau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 Stice, E.(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181-184.
- Wilson, G. T., Fairburn, C. G., Agras, W. S., Walsh, B. T., & Kraemer, H. K.(2002).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bulimia nervosa: time course and mechanism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267-274.
- Wilson, G. T., & Fairburn, C. G.(2002). Treatments for Eating Disorders. In Peter E. N. & Jack M. G.(Eds.). *A guide to treatments that work* (579-61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ttchen, H. U., & Jacobi, F.(2005). Size and burden of mental disorders in Europe - A critical review and appraisal of 27 studies.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15, 357-376.